

## 꿈꾸는 동토(凍土)



- 1953년 9월 생
-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대 졸업
-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법과대학원
- 연세대학교 법학 박사
- 제17회 사법시험(1975년) 합격
- 서울행정법원 법원장
- 대구고등법원 법원장
- 특허법원 법원장
- (現) 사법연수원 원장



손 용 근

### I. 찬 가(讚歌)

스스로 가시에 찢린 상처를  
향기로 맡고  
꽃날보다도 드센 의지로  
비상하여라.

관악기의 둔한 가락이  
찢어지는 열정속으로  
오뉴월 소나기 한번 내리고 나면  
검게 탄 얼굴, 초롱초롱한 눈매들

계단을 오르는 걸음마다  
이끼의 입김이 서리고  
층층마다  
기우리지 않는 너의 어깨여.

한점 빛없이 깊은 연못에 잠기다가  
어느날엔가  
목욕한 여인의 싱그럽보다 더한  
잔잔한 미소로 울고 있겠지.

오후의 먼지자락들  
시멘트푸대같은 후회의 짐을 벗어 버리고  
호두같은 뜻 서리내리는 정성으로  
네 돌을 갈아  
- 아우야, 가람의 물결처럼 도도히 도도히  
흐르기만 하거라.

## II. 전환기의 노래

1975년 3월 어느날

- 주님이여, 당신의 자비를 베푸소서. 아우야, 그날따라 시계바늘 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들려오고 있었다. 자꾸 확인해야 하였지. 살아 있다는 것. 그리고 승리한다는 것. 동대문까지 갔다가 옹기기 싫은 발걸음을 다시 학교로 옮겼다. 친우의 노동자가 훨씬들 커 보이더구나 - 축하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수를 청하였었다. 그 이상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감격! 이룬 것이다. 나의 작은 뜻을 이룬 것이다. 가난으로 인한 피나는 고생을 던고서 일어난 것이란 말이다. 눈물이 눈물이 앞을 가렸었다. 너무나 나의 지난 날이 서러웠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은사님, 선배님 감사합니다.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늙으신 조부모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마리 양의 세운 뜻을 기억하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 어머니 당신의 한스러운 가슴에 이 못난 자식의 합격소식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었겠지요.

- 아우야, 고맙다. 뜨겁고 뜨거운 너의 격려가 아니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있겠느냐?

## III. 고시전사(考試前史)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한낱 속스러움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너에게는 나를 이야기 하는 만용을 부러보고 싶다.)

나의 고향은 시인 영랑의 가락 드높은 전남 강진이다. 시쳇말로 빼골있는 집안이라는 조부모님의 자량은 어두운 현실에 대한 찬란한 과거의 투영에 불과한 것이었고,

차라리 나는 검댕이 묻은 고향집 처마밑을 사랑했었다. 씨앗이 움트는 신의 은총은 모르더라도 봄마다 숙명적인 윤희속에서 씨뿌리는 우리네 할매의 신앙을 믿었지, 기억 된다. 어느날인가 탐진가람에 황토물 넘치는 여름날 나는 어머니와 억지로 이별했었다.

- 어머니. 당신께 저는 눈물이었다지요. 눈물을 받아두는 꽃향아리였다지요.

그 후로는 줄곧 조부모님 밑에서 키웠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지만 어디 중학교나 갈 수 있었겠느냐? 다행히도 수석졸업, 수석입학이란 title 덕에 입학은 했었지. 선생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격려, 혼자서 해가 녀를 때까지 지켰던 교실, 가로수 뻗어 있는 길 가운데 해보다 더 화사한 보름달을 보고 환희에 넘치던 밤길. -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이 때 2년 여 친구 옥의 집에 있었다. 그때부터 독립을 향한 태동이 시작되었지. 옥과 우정을 쌓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고등학교는 생각도 못할 형편이었으나 순수한 의지의 실험으로 광주일고에 응시하였고 합격했었다.

이때부터 피나는 눈물겨운 고생이 시작되었지. 기억조차 하기 싫다. 모멸과 금지와 치욕과 분노와 경이가 혼동에 혼동을 거듭한 시기였으니까.

Nietzsche나 Sopenhauer와 친했었다. 매달 할아버지께서 쌀자루를 메고 광주까지 올라오신 것을 목격해야 했었다. 건디기 힘든 일이었지.

3학년때는 슬슬 5급공무원시험에 눈을 돌리려고 하였지만 대입에서 시작해서 대입으로 끝나는 학교의 분위기에 압도당하였고, 주위에서나 집에서나 심지어는 또 다른 나까지도 꿈에도 그리는 S법대를 향하여 도전할 것으로 믿었다. 꿈이었겠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면 붙잡고라도 따라가겠다는 뱀새의 오기였었지. 그러나 누구에게 호소하겠느냐? 나에게서는 정말 나의 영혼에는 휴식과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

대학입학예비고사에서 전남 차석을 얻고 기쁨에 젖은 것도 일순간, 추운 겨울날 오후의 텅 빈 운동장 그 가운데 덩그러니 혼자 裸身으로 서 있어야 했던 것뿐이다. 이때에 주님은 이 불쌍한 죄인을 돌아보신 것이다. 한양대법대에 한법장학생으로 보내신 것 말이다.

‘손 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느님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지금도 생생한 목사님의 말씀이다. 광주에서의 생활 중에서 Y군, 친구 황구와 홍도사, 최아주머니, Y군 엄마, Y양, L양에게 특히 감사를 드려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 IV. 고시통사(苦試痛史)

##### 1. 심심한 1학년

이리하여 나의 고통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다. 성스러운 고독 속으로 견고한 성을 쌓는 옹호자의 노래가 시작된 셈이지. 대학 1년생- 아우야, 그것은 자유 바로 그것이였다. Heinrich Heine의 눈부시도록 빛나는 5월에 우리(같이 장학생으로 입학한 권과 기 셋이서)는 Herman Hesse의 청춘은 아름다워라(Schön ist die Jugend!)에 아낌없는 정말이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고시합격이지 장학생이라는 긍지도 수석입학이라는 자랑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었다. 이리하여 청평사건과 쿠바디스 Yesterday Night(친구 기의 경우)를 끝으로 우리는 입지의 표시로서 선배들을 따라 삭발을 하였다(-고시공부보다 무언가 다른 것에 열중해야 했던 상황으로서 의미가 강했겠지). 그때 한양대신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

삭발. 언뜻 생각하면 깊은 산중에서 수도하는 사연어린 여승의 모습인 것 같지만 여기 우울한 캠퍼스를 바로잡고 법정대의 중흥을 기하고자 삭발한 남아의 굳은 결심이 있다[캠퍼스 화제에서, 이하 생략].

이때쯤이면 사법대 앞 잔디밭에서 제3한강교를 바라보고 고향하늘을 생각하였고, 같은 학교 같은 대학생이지만 아름다운 여대생 그들과도 어찌도 그리 문화적 격리감이 크던가? 많이도 울었었다. 대학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학생회장 참모로 뛰면서 알고 난 후 바로 제12회 사법행정요원예비시험 준비로 돌진하였다. 예시 합격 후 곧 겨울방학이 되었고 나는 낙향하여 비로소 고시 그것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아우야. 부끄럽게도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커다란 입지도 없이, 소박하게 말하여 빵과 권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생존을 위하여 실존한 것 뿐이었다.

이러한 격랑의 1학년도 헌법3독, 민법총칙3독, 형법총론2독, Hesse전집1독으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

##### 2. 2학년. 그리고 너를 만났지

기숙사가 별빛이 보이는 인문관 옥상으로 옮겨가 2학년이 되었다. 그리고는 너를 만났지. 열심히 공부하고자 노력했던 기억이 나는구나. 대학축제의 광파르가 울려 퍼질 때 스스로 에프랑제(이방인)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차라리 인문관 강의실에서 등기청구권을 읽는 것이 마음 편했었다.

- 진짜 공부를 하려거든 천하에 제일가는 바보가 되어야지요.

자못 법률용어에 익숙해질 무렵 여름방학이 되었고, 양주 퇴계원 우리의 비둘기 집(기숙사를 우리는 이렇게 불렀었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① 먹고 ② 자고 ③ 변소가 ④ 공부만 하는 4대원칙 하에서만 움직이려 노력하였다만 때로는 배구, 농구

를 하였고, 개울물에서 수영도 하였었다. 석양의 미루나무 숲속을 산책하던 일과 새벽마다 단체로 구보하던 일이 기억되는 구나. 2학기에도 full speed로 공부에 전력 투구하고 있던 차 느닷없이 10월 유신을 맞게 되었고 학교기숙사에서 또 퇴계원으로 옮겨야 했었지. 일찍이 이처럼 고민에 쌓여 본 적은 없었을 것이다. 낙향했었지. 법서가 눈에 들어오지 않더군. E.H.Carr의 What is history? 그 한권을 들고 뒷동산에 왕래하던 어느 날 문득 누렇게 익은 별관을 바라보고 나는 열매를 걷기 위해서는 지금은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전율을 느끼며 확인하였다.

- 그대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전진하라-

다시 퇴계원에 입사하여 나의 고시공부기간 중 최대의 혈투라고 생각되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친구 기와 경쟁이나 하듯이 새벽 2~3시쯤 자고 6시에 일어났었지. 민법을 전부 읽고 타과목들도 기초를 놓았지만 4개월 동안의 계속된 생활에 무리가 있었던 모양이다. 두통을 얻고 만 것이다(이 후 줄곧 두통은 나를 괴롭혀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각 과목을 Note 작성하였으며, 정의집을 만들어 식후에 5개씩 꼭 암기하였다. 글씨 연습도 하였고 이때부터 학습일지(매일 공부한 것을 기록하여 둔다. 반성용으로 훌륭하다)를 기록하기 시작하였으며 주일에는 서울에 나가 모 종교단체의 활동에 더욱 열을 올렸었지. 잠은 8시간 썩 자라고 부락하고 싶다. 실제 공부총량에 공부하는 것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책은 정평이 있는 것으로 택하여 정독, 다독, 발췌독, 속독을 종합하여 읽고 암기도 이와 병행하면 좋을 것이다. 순조롭게 2학년을 마무리 짓고자 하였을 때 73년을 맞게 되었다. 맹세했었지.

- 새로워야 한다. 밝은 날에 잔을 넘치게 하라. 비록 어제까지 천개의 잔을 넘치게 하였을지라도 오늘 다시 하나의 빈 잔을 준비하자!

그러나 무슨 충격이라? Y군의 부친께서 간경화증으로 3개월 후면 별세하시리라는 소식에 접하게 된 것이다. 광주에 내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느님 한 분 뿐입니다. 어린 5남매를 두고 가셔야 했던 그 분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뿐. 그리고 내적인 확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 종교단체의 활동도 Dietrich Bonhoffer의 신도의 공동생활을 읽는 것을 끝으로 그만두었다. 목자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처지에 설상가상으로 L양으로부터 깨끗한 결별을 선고당했었지. '세시봉'다실에서 일어났다. 죽음과 사랑과 종교와 투쟁, 이 모든 것을 생각했었다.

- 오호라. 나는 끈고한 자라.

퇴계원 하천독을 몇 번이고 거닐며 미루나무 앙상한 가지에 땡그라니 걸려 있는 까치동우리를 보고 천 번쯤 다짐했었다. 봄이 오겠지. 꽃피는 봄이 오겠지. 천지가 얼어붙은 시간에 꾸는 마지막 꿈이었지. -동토(凍土)여, 꿈꾸는 동토(凍土)여!

### 3. 성숙, 그리고 3학년

유신으로 인하여 15회 1차가 5월로 연기되는 바람에 시험한번 못치고 3학년이 되었다. 5월 1차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내딛고 있었다. 처음 도전하는 1차라서 정말 성실하게 준비하였다. 국내의 객관식문제집을 거의 다 보았고(적어도 3가지는 보아야겠지)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는 노트에 ★표를 해두어 후에 시간을 절약하였다(모르는 문제를 자꾸 승진시키다 보면 중장이나 대장도 나온다!). 이때는 주기적인 두통으로 아주 고생하였다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머지는 공부에 충실하기로 더욱 다짐하였다.

근본적으로 아프다는 것이 공부를 쉬어야 되는 이유가 안 된다는 투철한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몸시도 울적할 때는 모든 것을 툭툭 털고 미사촌 모래사장을 달리거나 덕소의 한강물을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하였다. 아무리 바빠도 여유는 만들면 있더라. 1차 조금 전에 중간고사가 있어서 애를 먹기도 하였지. 조금만 지혜를 짜면 학교공부와의 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의를 죽자고 외면하고 입산수도 하는 과는 나는 두 손 들고 반대하고 싶다. 1차 시험 바로 전날이 해당축제가 있던 날이라 약간 산란한 분위기 속에 정리를 마치고 1차에 응시하였다. 별 어려움 없이 치르고 나서 안심은 되었지만 마지막 영어시간은 하늘이 노랗게 되는 심한 두통 때문에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 이것이 매우 걱정이 되었다. 시험장에 갈 때는 구급약쯤은 상비해야겠더라. 1차가 끝나고 설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후회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1차후에는 두통 때문에 공부가 되지 않았고 병원에 출입하였다. 몸에 이상이 오면 경제적인 무리를 해서라도 병원에 드나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상대로 1차는 합격하였다. 사필귀정.

여름방학이 되었다. 미루나무 숲속 파란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갈색의 굴뚝이 있고, 시냇물이 흐르는 퇴계원 비둘기집-거기에서 또 생활이 시작되었다. 16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기에 ‘찰거머리’작전을 펴서 죽어도 책상에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였다. 달뜨는 미루나무 숲에서 수박파티를 하던 일. 흙탕물 속에서 접전하였던 퇴계원 초등학교의 우중 축구시험. 잊을 수가 없다. 우리 모두 외쳤지.

‘형님도 무적의 사자 아우도 무적의 사자... 보아라 보아라 작업복의 생기있는 눈동자를, 사나이 굳은 뜻 무얼 겁내랴. 조국의 이 강산은 우리 것이다...“(고시반가 중에서)

누가 무어라고 해도 우리는 꿈을 키우는 꿈나무들이었거니. 73년 8월 11일 15회 2차 발표가 있었다. 올림픽정신을 발휘했던 그 때는 과락 중에 낙방 - 이것 또한 사필귀정.

별빛이 줄기처럼 쏟아지는 시간에 멥그랑 거리는 바람소리가 더욱 싸늘했던(학습 일지 73년 9월 기록) 2학기에도 full speed가동 질주하고 있던 차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다. 눈물이 쏟아지고 눈이 쭈시기 시작한 것이다. 병원에 가서야 시력이 -5디옵터의 안경을 써야 할 정도로 나빠진 것을 알았다.

- 때는 늦으리 고시공부 중에는 치질, 위장병, 눈병은 꼭 주의합시다.

이때부터는 주일마다 영양보충하러 꼭 나갔고 친적집을 순례하며 용돈을 타냈다. 대학 1학년 때의 장학금 그대로였기 때문에 엄청난 물가상승에 비하여 실질소득은 격감되었기 때문이다(장학금 줄 인상되면 얼마나 좋겠나만?) 10월 전후 친구 '구'가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다. 마음껏 축하를 보내고 나도 나름대로 정리가 필요했기에 '구'와 훌쩍 제천에 갔다 왔다.

그리고는 또 케도진입. 매월 두 번의 모의고사에 대비 15일 또는 30일에 한 과목씩 읽기로 하였다. 11월19일에는 P형님이 법무관시험에 합격하는 쾌사가 있었지만, 그때 나는 또 골치 때문에 병원에 출입하고 있었다.

이어서 대학생활에서 3번째 맞는 겨울방학이 되었다. 결전의 16회를 놓아두고 선배들의 합격기에 기록된 대로 시험 3개월 전에 집중타를 때리기 위해서 좌우언타를 전광석화처럼 날리고 있을 때 나는 KO승을 다짐하였고 74년 갑인년을 맞고 있었다. - 새로운 것을 얻어 보겠다. 지난 해에는 도약을 위한 작은 다짐이 아니었던가? 이제 시련을 벗어 난 견고한 인내로 이 밤의 눈송이만큼 탐스러운 결심을 기도해 본다. 제야의 종소리가 가슴으로만 이어지는 언어들을 보내고 있었지.

16회 2차를 치루었다. 각별히 두통에 대비하여 약을 구입하였고 별다른 애로 없이 치루었다. 그리고 확신했는지. 합격 그것을 기다리고만 있거라. Nur Warte!(그저 기다려라!)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도 공정하셨다. 마음의 준비없는 이 오만한 늙은 합격을 당할 수 없다고 보셨는지 철퇴를 가하신 것이다. 최고 상법은 64.00 최하 민사소송법은 51.00이었다. 반은 50점대로 17회보다 오히려 고른 성적이었으나 데드라인에 0.9가 모자라는 점수였다. 폐인은 전과목을 고루 공부하지 않은 때문이었다. 죽자고 공부해도 60점에서 오락가락하는 헌법은 15회독을 훨씬 넘어간 반면 민사소송법은 2회독을 하고 만 상태였던 것이다. 전과목을 고루 공부하여 7회독 정도면 합격선에 이르는 것 같더라. 민사소송법은 잠오는 과목이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본다. 판정승일랑 기대하지 말고 원투에 이은 혹과 Uppercut(어퍼컷)으로 KO시키자.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확실히 KO(좋은 득점)시킬 수 있다. 투자효과도 매우 크고 가장 난해한 형법은 강의로써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시운 판사님과 김종원 교수님의 강의를 꼭 들으라고 권하고 싶다. 또 문제집과 교과서도 잘 조사시켜야 한다고 본다. 기준이 되는 문제집과 교과서를 구한 후 기준이 되는 문제집에다 다른 문제집이나 법률잡지에 있는 문제를 뜯어 붙여서 완벽하게 한 후 교과서와 비교하여 문제집

에 없는 부분은 교과서에 표시한다. 바쁘면 교과서의 표시부분만 읽어도 대충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략 이러한 느낌을 남긴 채 16회도 모나리자의 미소를 남기고 안녕!

#### 4. 장렬한 마지막 장을 위하여

4학년 - 그것은 비참한 것이다. 군대문제가 슬슬 인사를 시작하고 졸업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거의 날마다 애인처럼 생각나는 때이다. 아우야. 이런 때 일수록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였다. 가끔 아픈 일이었던 '주, 준'의 퇴반 문제가 마무리 되자, 이번에는 나를 너무나 몰랐던 '세, 주'에 의하여 고별 미팅에 참석해야 하는 곤혹을 치렀다. 도대체 나는 청바지, 통기타, 생맥주의 청년문화 운운에는 생리적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 마지막 대학축제를 놓고 참석할까 망설이다가 광주 남한산성 입구로 가서 S와 자축하고 돌아왔다. 여름방학 때는 산사에서 보내라는 주의의 권고도 시력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비둘기 집으로 첩거하였다. 공부는 변함없이 고정 스피드를 지키고 있었으나 예년과 달리 쫓기는 기분은 아니었고 페이스만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솔직히 이야기하여 75년 초에 있었던 두 번의 2차 모의고사 성적이 나에게 상당한 자신을 부여하고 있었지. 다만 나태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서로 하여. - 유달리도 냇가에 수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던 75년 여름. 수영하러 온 모여대 아이들과 한여름 밤의 꿈을 키우려 너희들 몰래 규칙을 위반했던 사건이 있었다 (미안). 섭. 식. 표는 물론 친구 기에게도 주님의 진실한 축복이 임하기를 빌어본다. 그 해 여름의 고시반 Camp Fire! 정말 멋진 밤이었다.

- 불빛이었어라. 타는 여름 밤이었어라. 독한 술에 취하지 못하는 밤이었어라.

- 마시자 한잔의 술, 이장희의 몽마르쥬 CM송이 몹시도 유행했던 그해 여름 캠프족 때문에 너도 꽤 산란했겠지. 3,4학년 때는 큰절에 가서 방학을 보내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많이도 고민하였다. 학장님, 지도교수님, 지도선생님, 후배들 그 사이에서.

- 아우야. 선배는 되도록 괴롭혀다오.

2학기에도 단 한번의 슬럼프 없이 질주. 9월에는 고시반 단체여행이 있었다. 공부하는 중에 너와 더불어 여행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계룡산 입구처럼 싱싱한 일이었고, 백마강 강물처럼 은은한 일이었다. 그해 추석 너조차 없었던 그 밤에 J형님과 P형님과 을지로에서 가졌던 환담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쓸쓸히 기록하고 있었다.

- 주룩주룩 비 듣는 소리만 나는 밤이다. 올 한가위는 달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누구의 의지인가? 나는 차고 넘치는 둥근 달을 보기 원한다.-

10월 14일부터는 특강이 시작되었지. 모두가 유익한 것이었지만 이시윤 판사님의 민사소송법과 백형구 변호사님의 형사소송법은 도움이 컸다. 특강이 있다면 기를 쓰

고서라도 들어야겠다. 해결될 수 없는 동생의 진학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제3회 2차 모의고사를 치렀고 평균 61.88을 기록했었다. 17회 수석. 그것을 목표로 체찍을 가할 것을 권고받았고 나도 다짐했었다(말속이라도 감사하겠다는 겸손과 수석이 아니면 반납하겠다는 폐기는 조화하기 힘들었다. 양자 모두 미덕이겠지).

11월부터는 졸업과 취직 등으로 급우들도 슬렁대기 시작하였고, 졸업고사, 사은회, 졸업생환송회 등으로 꽤 바쁘게 되었다. 환송회나 사은회는 꼭 참석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곧 대학원문제 때문에 몇 가지 난처함을 경험하였다.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바쁜 중에도 독어와 영어를 공부했어야 했고 상대적으로 손실도 많았었다. 다시 치러야 했던 1차가 부담이 되기 시작한 12월. - 변함없이 퇴계원 비둘기 집에 틀어 박혔다. 잡다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여 시간에 쫓길수록 여유와 친하려고 노력하였다. 매일 30분씩 기초운동을 하였고 주일마다 영양보충을 하였으며 주일예배도 지켰다. 더욱 감사한 것은 아우야. 74년 크리스마스 때에는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방글라데시의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 12월 28일에는 P형님의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는 적극 축복해 드렸었지. - 이 처럼 올바르게 들어맞는 역설 또한 드물겠지.

##### 5. 꽃피고 새 올면

눈동자처럼 사랑이신 당신을 손끝마다 느꼈던 74년을 보내고 만년을 이어갈 소망의 무리들이 태양을 안은 꿈을 꾸었던 75년 아침이었다. 2차 공부를 아예 체지고 1차만 하기 시작하였다. 28일에 1차가 있었으므로 만족하게 준비하려면 한 달은 걸리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번 1차에 합격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1차를 보아야 할 경우에 며칠이나 소요되는가에 관하여서 각설이 분분하나 기본삼법은 객관식문제집만 읽기만 한다면 22일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27일을 할당했던 나는 며칠 앞부터는 통 공부 페이스를 찾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1차 준비는 끝났고 2차 준비는 할 수 없는 어정정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1차 후에는 완전히 2차에 매진할 수 있었다. 1차를 400여명 뽑는다면 예년의 통계로 보아 50명 선에 쯤 있으리라고 예상되어 별 걱정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예상대로였다). 각 과목전체를 커버하면서도 급소를 치는 것과 평범한 펀치를 날리는 것이 조화되도록 하였다. 두통 때문에 잠은 통 줄일 수 없어서 8시간씩 계속 잤었다. 잠은 하얏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8시간 썩은 자야 할 것이다.

2차 3일 전에 졸업식이 있었다. 졸업식은 꼭 참석해야 할 것이라는 스스로의 고집 때문에 몇몇 너희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식당에 나갔었다. 비록 고시합격증은 아니었지만, 졸업장과 수석졸업생들에게 주는 상장-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했었지. 4년 평점 3.96/4.0- 후회 없는 대학생살이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 꽃피고 새 올면 너도 울고 나도 울겠지. 웃음을 꽃피우면서 말이다. 아우야, 졸업식장에서 나는 여유있

게 합격을 자신했었다. 그리고 2차에는 기도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맹세했었다.

2차 시험장에서는 꼭 ‘조용히 침잠하고 아는 것만 모두 쓰자’는 표어를 기억해 주면 한다. 진인사(盡人事)했어도 합격하지 못하면 그것은 주님의 뜻. 그것 자체로도 족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2차 시험 3일째에는 전혀 기억치도 못했던 대퇴부근육이상(고등학교 때 다친 곳) 때문에 헤메이더니, 4일째에는 마지막라운드를 남기고 있는 프로복서처럼 반사적으로 종이만 메꾸고 있었다. 시험 후에는 Es ist gut(좋다)를 외칠 수 있었고, 함박눈이 내리고 있어서 더욱 좋았다. 또 더욱 좋은 것은 공부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합격을 스스로 반납하겠다는 평소의 확신이 입증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남은 것은 절절뿐이었다(이것은 친구 주의 말)고 하면 너무 오만한 풋내기일 일언이 되겠지. 너와 약속한 최연소, 수석 그 어느 것도 실현하지 못해 미안하다(여유있는 합격이기는 하였다만).

## V. 사랑노래 보낸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 하려고 했다만 잘 되었는지 모르겠다. 한 두마디만 더 쓰겠다. 우선 우리 서로 애타게 사랑했으면 한다. 누군가 특정인을 미워해야 했던 아픈 기억을 나는 가지고 있다. 고시공부 자체가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만들어 내기 쉬운 것 같더라. 사랑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을 녹이면 고시도 사랑에 녹겠지. 그리고 고시공부하는 사람보다는 확장님말씀대로 공부하는 학생임을 기억하면 한다. 수도하는 자세로 묵묵히 묵묵히 정진하는 것이 바로 인격형성의 지름길임을 나는 믿고 있다. 머리카 기르고 커피나 마시고 당구나 치는 대학생을 평가절상하는 교수님의 말씀을 감히 무시하자. 누가 무어라고 하더라도 공부하거라. 그러면 공부 외의 모든 것도 알 수 있고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젊은 날 그것도 가장 젊은 하나의 뜻을 세우고 집념과 정열을 모두 바쳐 보는 것. - 얼마나 멋진 일이나? 뽀뽀머리 너의 의지에 사랑 노래 보낸다.

- 합격 후 제일 먼저 격려의 편지와 전보를 보내 주신 김경흠 선생님, 정양규 선생님, 이용석 선생님, 문정식 선생님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수험 중에 계속적인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총장님, 이총장님, 김학장님, 백부장님, 정부장님, 강지도교수님, 이교수님, 퇴계원 김선배님, 밥해주신 아랑이 엄마, Miss 양, 꼬마 윤성이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 아울러 아버님과 작은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 선배님, 사랑하는 친구 기와 권, 축망되는 후배들의 차회 합격을 거듭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하고 뜻을 갈고 계시는 여러 동도제현께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어음이 익으면 빛을 잉태한답니다. 건투하십시오. 1975년 한여름에.